

동형이의어의 구별을 위한 한글한정어 사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angul Qualifier for Homographic Descriptors

김태수(Tae-Soo Kim)* 최석두(Suk-Doo Choi)**

목 차

1 서 론	3.3 한정어의 사용범위
2 지금까지의 동형이의어 구별방법	3.4 한정어의 사용원칙
3 한정어 사용방법의 새로운 제안	4 한글한정어의 확대 응용
3.1 한글한정어의 타당성	5 제안 방법의 문제점
3.2 기입어 및 한정어의 형식	6 결 론

초 록

다의성이 있는 용어를 색인어로 사용하게 되면 템색자의 요구와 관계없는 주제가 검색되므로 잡음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통제어휘시스템에서 색인어로 사용될 기입어가 다의성을 가질 때 한글, 한자, 외국어 등을 이용하여 동형이의어와 세부분야를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대단위 어휘사전을 구축하려고 할 때 이들을 이용하여 다의성을 해소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으며, 흔히 사용하고 있는 한자한정어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색인어로 사용될 기입어가 다의성이 있을 때 한글한정어를 부기하여 이들을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한글한정어의 타당성, 사용범위, 사용원칙 등에 대하여 시소러스를 중심으로 논하고 이 개념의 확대적용방안에 대하여 언급한다.

ABSTRACT

It is our main aim in this study to discriminate the conceptual relationship between homographic descriptors. The roles of qualifier and the problems of the recent usage of qualifier such as Hangul, Hanja and foreign languages, which is based largely on the dictionaries, subject heading lists and thesauri, are analyz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ur test thesaurus developed as a macro-thesaurus. Finally, we proposed some new ideas must be integrated into the Hangul qualifier in order to make it generally applicable within the field of dictionary, and the method of representing, selection principles and priority of Hangul qualifiers.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논문 접수일 : 1997년 4월 15일

1. 서 론

색인 및 색인어는 색인자와 탐색자간의 약속이다. 색인자는 차량의 '탱크'를 색인어로 사용했는데 탐색자가 그릇의 '탱크'를 찾는다면 이 약속은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여러 학문분야의 문헌이 통합되어 색인될 때 이와 같이 발생하는 동형이의어의 빈도는 매우 높으며 이를 구분하는 방법이 없으면 검색에서의 잡음률은 높아질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색인자가 브라우즈해야 하는 어휘사전이나 탐색자가 브라우즈할 수 있는 색인파일에서는 이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러 분야의 문헌이 통합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통합검색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색인작성시 참조하게 되는 시소러스에서 이들을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어떤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정보는 국어사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나타내는 줄임말, 기호, 설명부분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시소러스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색인 및 검색용 어휘사전에서 동형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하여 한정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어휘사전에서 사용되는 한정어로는 한글, 한자, 영문 등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한자부기에 의한 구별방법을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문자가 한정어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한자의 부기에 의한 구별이 가장 많은 것은 주제명표목표나 시소러스에 등록되어 있는 용어수가 적거나 특정 분야에 한정된

어휘사전이어서 동형이의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분야가 확대되고 용어가 늘어나게 되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동형이의어의 구별이 어렵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동형이의어가 있는 경우에 색인자와 일반 탐색자가 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칙성과 일관성 있는 한글한정어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소러스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고와 관련하여 시험하고 있는 시소러스는 전분야를 대상으로 구축중에 있으며, 1997년 4월 현재 수록 용어수는 비디스크립터를 포함하여 약 4만9천 어이다.

2. 지금까지의 동형이의어 구별방법

통제어휘사전은 검색의 정확률을 개선하고 부적합문헌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의 주제를 특정 형식의 표목으로 표현해야 하는 것과 같이, 각 표목도 하나의 주제만을 표현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언어의 성격에 따라 어형은 동일하지만 상이한 의미를 지닌 동형이의어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동형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통제어휘사전에서는 표목(또는 세목)에 한정어를 사용하여, 개개의 개념을 하나의 고유한 의미의 표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고유표목을 유지하는 것은 검색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검색시 부적합문헌의 수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다.

국어사전의 경우, 동형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서울 : 어문각, 1991 : 11)에서는 “형태가 같은 말의 차례”를 품사, 표준말, 토박이말, 긴소리표시, 한자의 획수 등으로 결정하고 순서대로 어깨번호를 매겨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말본형태, 전문어의 분야, 옛말 및 이두말, 들온말 등을 줄임말 혹은 기호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자, 로마자, 긴소리표시, 사용지방 등을 부기하여 식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정보의 내용과 순서는 사전마다 달라질 수 있다. 「우리말큰사전」 표기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류¹ (이) 미세기 흐름. ② = 흐름②. (ㅂ)

시대적. [潮流]

조류 : ² (이) ((동)) = 새강1. [鳥類]

조류 : ³ (이) ((식)) = 말무리1. [藻類]

새 : -강¹ (이) ((동)) 날짐승으로 이루어진 등뼈동물의 한 강. …… (한) 새무리 ②. 조류².

말-무리¹ (이) ((식)) 물속에 사는 민꽃식물의 무리. …… (한) 조류³.

이 방법은 컴퓨터처리에 적합하지 않으며, 배열에서 문제가 있고 그룹화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를 구별하기 위하여 설명문을 모두 읽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주제명표목표」(이재철, 1961)를 보면 동형이의어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주제명표목표」에서는 개념을 구별하기 위하여 외래어의 영문부기, 세부

분야의 한정, 보다 명확한 개념의 부기, 한자의 부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길드(Guilds)	철(계절)
민요(시)	신(軌)
민요(음악)	신(神)
단파(무선)	신경(信經 : 기독교)
몰이(사냥)	다리(橋)
어깨(깡패)	

특히 이 「주제명표목표」에서는 이 방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범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 따라, 특히 한글타자기를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한자(漢字) 병기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하여 생략해 버리거나, 한자(漢字) 대신 한글로 딴 동의어 또는 상관어를 적어 넣어 이를 구별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논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한정어의 사용을 예시하고 있다. 이 예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과 거의 부합한다.

수영(水泳)	→ 수영(해업)
조류(鳥類)	→ 조류(새) 또는 조류(동물)
약대(駱駝)	→ 약대(동물)
수목(樹木)	→ 수목(나무)
외과학(外科學)	→ 외과학(의학)
개(犬)	→ 개(동물)
말(馬)	→ 말(동물)
말(言語)	→ 말(언어)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 15판 (Library of Congress, 1992)에서는 필자가

계산해 본 결과 수록용어 199,712어 중 약 18.4%인 36,729어에 한정어를 붙이고 있다.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서는 지명 고유명사를 많이 수록하고 있으며 한정어는 대부분 이 지명을 한정하기 위하여 부기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다의성이 있거나 용어만으로는 다르게 이해될 우려가 있는 용어에 대하여 한정어를 붙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 각각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nap Pond(Korea)	“안압지(한국)”
Cheju Strait(Korea)	“제주해협(한국)”
Chiri Mountain(Korea)	“지리산(한국)”
Kim Ssi Chip(Ch'ongju-gun, Korea)	“김씨집(청읍군, 한국)”
Myǒng-dong(Seoul, Korea)	“명동(서울, 한국)”

ALPHA(Information retrieval system)

ALPHA(Electronic computer system)

Amens(Music)

이외에도 괄호한정어는 아니지만 한정의 의미로 사용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세목을 사용한 경우 : Dwellings Korea(South)

도치형식 : History, Ancient : Philosophy, Medieval
도치된 용어의 원괄호 한정어 : Philosophy, Greek
(Modern)

특정 연대 : World War, 1914-1918 : World War,
1939-1945

시소러스에서 동형이의어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주제명표목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특별히 영문을 주로 한정어로 사용하고 있는 시소러스(국방과학 연구소, 1994 ; 한국통신연구개발원, 1995), 한정어 없이 분류기호만으로 구별하는 시소러스도 있다(한국경제신문사, 1993). 기존의 시소러스에서 영문이나 분류기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특정 분야의 시소러스로서 어휘의 수가 많지 않아 동형이의어의 발생률이 매우 낮거나 없었으며, 이의 구별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3. 한정어 사용방법의 새로운 제안

3.1 한글한정어의 타당성

기입어가 다의성이 있을 때 한글한정어로 이를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 기입어의 다의성을 한글한정어로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언어관습상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한자, 영문만을 사용하거나 한글과 함께 혼용하여 다의성을 해소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 한글, 한자, 영문을 필요에 따라 섞어 한정어로 사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모두 한자만으로 구별이 가능하다면 좋으나 한자 표기가 어려운 용어도 많다. 순수한 우리말 중의 일부와 외래어인 경우에 한자로 표현할 수 없는 용어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예 : 줄질(절삭) : 체(여과기)). 영어로 한정어를 부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용어가 많다.

둘째, 한글음에 대응되는 한자는 있으나 표준코드에 해당 폰트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상에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예 : 붕어(물고기) [鰐魚]의 鮀).

셋째, 한자까지 동형인 동형이의어이면서 사용분야에 따라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예 : 집합(수학) [集合] : 관계(수학) [關係] : 말(동물) [馬] / 말(장기) [馬]).

넷째, 식별을 위한 한자가 오히려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예 : 굴(조개) [牡蠣] / 窟 : 붕어(물고기) [鰐魚] / 崩御 : 박(열매) [匏薦] / 箔).

다섯째, 한자의 확장문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형이의어의 배열시 기준이 없다. 표준 한자코드의 코드값을 결정할 때 일차 한글음 순으로 정하고 동일한 음에 대해서는 한자사전에서의 출현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코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열상 혼란이 올 수 있다.

여섯째, 한글, 한자, 영문을 필요에 따라 섞어 한정어로 사용하게 되면 그 용어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열이 어디까지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용어간의 링크를 만드는 작업이 어려워 어휘사전을 만들기가 매우 복잡하며 동일한 개념의 기입어가 복수로 만들어지는 예의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일곱째, 한자한정어를 어휘사전 내에서 다른 용도(상위개념어, 관련어 등)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응되는 한글음으로 정확하게 자동변환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예 : 나인[内人] / 내인 : 모과[木果] / 목과 : 뱕어[白魚] / 백어).

여덟째, 핵심어나 단어검색이 가능한 온라

인시스템에서 한글한정어는 주표목이 표현하는 주제에 부차적인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구체이론(위상기하학)'에서 주제인 구체이론과 상위영역인 위상기하학이라는 두 가지 수준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음악과 관련된 표목에서 한정어는 여러 기준에 따라 자료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다. 즉, 콘체르토, 소나타라는 표목에 악기명을 한정어로 사용하게 되면 음악형식과 연주수단이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시소러스구축시 한정어를 상위개념어로 링크시킬 수 있다.

동형이의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은 국어사전 혹은 전문용어사전에서의 특정 개념에 대한 설명부분이 된다. 따라서 설명부분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간결한 한글용어를 선정하여 한정어로 사용하게 되면 이상의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어사전에서 한정어를 사용한다면(물론 한정어의 기준이 명쾌하여 동일한 한정어를 사용해야 하지만) 어깨번호로 구분하지 않고 한글부분만으로 모든 국어사전이 동일하게 같은 개념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 어휘사전의 용도에 따라 추가되는 정보를 포함하여 그 외의 정보는 참고정보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2 기입어 및 한정어의 형식

시소러스에 포함되는 용어는 명사 및 명사구가 되며 색인어 및 참조지시어(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로 사용되는 전문어. 속어, 방언, 외래어, 동의어, 로마자 두문자어 및 일부의 영어 등 시소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용어 ('6.25사변→한국전쟁'과 같이 잘못 사용된 용어도 포함하여)가 한정어 부기 대상이 된다. 표현형식은 다음과 같다.

기입어(한글한정어₁ : 한글한정어₂ : …… : 한글한정어n) [기타 참고정보]

'기입어'는 동형이의어를 가진 용어가 되며 꼭 한글용어만일 필요는 없다. 즉, 숫자, 영어의 두문자어 및 한글이 단독 혹은 혼합되어 사용된다. '한글한정어₁ : 한글한정어₂ : …… : 한글한정어n'은 순서대로 제1한정어, 제2한정어, 제n한정어가 된다. 한정어 혹은 한정어군은 팔호 속에 넣어 부기하며 일정한 순서를 갖는다. 한자, 외국어, 기타 정보는 참고정보로 부기할 수 있으며, 한자와 영문 없이도 동형이의어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정어를 포함한 한글부분으로 모든 용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한정어를 포함한 한글부분으로 기입어를 유일하게 식별하게 되면 다른 용어와 링크될 때 (상 · 하위개념어, 관련어, 동의어 등) 참고정보를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좋다.

예로 '말'에 대한 한정어를 부기하여 보면 다음 예와 같다. 한정어까지 포함하여 색인어가 되며, 한자와 영문부분은 참고정보가 된다.

말(도량형)	[斗]
말(동물)	[馬] horse

말(식물)	[藻]	pondweed
말(언어)	[言語]	language
말(장기)	[馬]	chessman

이와 같이 구별되어 색인된 색인파일을 단순히 '말'로 검색했을 때 한정어를 포함한 한글 부분이나 참고정보까지 그대로 디스플레이하게 하여 찾고자 하는 주제를 색인자나 탐색자가 정확히 선택하거나 전체를 포괄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문부분을 다국어로 확대하면 한글 중심의 다른국어시소스를 만들 수 있다.

3.3 한정어의 사용범위

지금까지 한정어는 통제어词汇집, 색인파일, 사전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왔다. 한정어를 사용해 왔거나 사용 가능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한정어는 동형이의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사용하며, 해당되는 용어 모두에 대하여 부기한다. 동형이의어의 관계는 색인어와 색인어, 색인어와 참조어, 참조어와 참조어간에 발생할 수 있다. 색인어와 색인어간의 관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색인어와 참조어간, 참조어와 참조어간의 동형이의어 관계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공채, 병사'가 동형이의어의 관계를 가지나 '공채(공개채용), 병사(군인)'은 참조어이며, '가문(집안), 가문(상징)'은 양쪽 모두 참조어이다.

공채(공개채용) [公採] USE 공개채용

공채(유가증권) [公債]

병사(군인) [兵士] USE 군인

병사(죽다) [病死]

가문(집안) [家門] USE 가계(집안) [家系]

가문(상징) [家紋] USE 문장(상징) [紋章]

특이한 경우로 ‘tire/타이語, 파리/Paris’ 와 같이 외래어와 국어간, ‘파이프(관) / 파이프(담배), 키보드(악기) / 키보드(컴퓨터)’ 와 같이 외래어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타이어(고무제품) tire

타이어(언어) [타이語]

서지(자료) [書誌] bibliographies

서지(전압) surges

파이프(관) pipe

파이프(담배) pipe

키보드(악기) keyboard

키보드(컴퓨터) keyboard

다음 예에서와 같이 로마자 두문자어인 경우에도 사용한다.

CD(금융상품)

CD(음반)

CD(자료) USE 컴팩트디스크

ISO표준에서도 「색인의 내용, 조직, 표현에 관한 지침」(ISO/DIS 999-1993)에서 “동형이의어는 한정어를 추가하여 구별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색인시에 동형이의어가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한정어 형태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Geschichte (historische Entwicklung)

Geschichte (Romanliteratur)

grue (machine de levage)

grue (oiseau)

races (ethnology)

races (sport)

2) 어휘사전에 한 번 출현하더라도 다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한정어를 부기한다. 다음 예의 ‘관계, 관사, 레닌’은 한 번 출현한 용어이지만 한정어가 없으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남북전쟁’은 특정 전쟁을 지칭할 수도 있지만 ‘베트남전쟁’ 등과 같이 구체적인 전쟁이 아니라 남쪽과 북쪽이 싸운 모든 전쟁을 지칭할 수도 있으므로 미국의 남북전쟁을 나타내기 위하여 연도로 한정하고 있다. 동형이의어가 후에 추가될 수도 있다.

관계(수학) [關係]

관사(품사) [冠詞]

레닌(호소) renin

남북전쟁(1861-1865)

3) 지명의 한정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상위 지명을 한정어로 사용한다. 지명의 범위는 매우 넓어서 행정구역명, 국명, 산이름, 산맥명, 해협명, 만이름, 강이름, 계곡명, 섬이름 등이 포함된다. 지명의 한정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하나의 상위 지명

을 사용하는 방법, 둘째, 의미만을 사용하는 방법, 셋째, 두 가지 이상의 상위 지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각 지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의 상위 지명은 '광주(경기도) / 광주(광주광역시)', 의미로는 '금강(강) / 홍도(섬)', 두 가지의 상위 지명은 '중동(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 주상(경상남도 : 거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광주(경기도) [廣州]

광주(전라남도) [光州]

금강(강) [錦江]

홍도(섬) [紅島]

주상(경상남도 : 거창)

중동(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中洞]

4) 시대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한정어를 사용할 수 있다. 주제명표목표에서는 일반적으로 세목을 갖지만, 시소러스에서는 세목을 갖지 않고 세목에 해당되는 용어를 모두 독립된 기입어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시소러스에서 시대명은 독립적인 기입어로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소러스에서 시대를 처리할 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하나는 시대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중국사-근대, 중국사-남북조시대' 등은 모두 '중국사'로 처리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시대를 다음 예와 같이 한정어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색인함으로써 해당되는 문헌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국사(근대) [中國史]

중국사(남북조시대) [中國史]

한국사(삼국시대) [韓國史]

한국사(고려시대) [韓國史]

이 두 번째 방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각국의 역사에서 시대구분을 세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모든 국가의 시대구분을 준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사용되는 시대구분은 역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문학이나 예술분야 등에서 적용하는 시대구분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동일 문학분야 내에서도 장르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따라서 시대구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사 이외의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형식을 표준화하여야 하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시대명을 독립적인 기입어로 분리하는 방법이다. 시대명만으로 검색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는 않으나 기입어로서 독립시키더라도 처리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예를 들어, '삼국시대, 고려시대' 등은 '한국사'에만 매칭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방법보다는 세 번째의 분리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고대, 근대' 등과 같은 시대구분용어는 '고대한국사/근대한국사, 고대중국사/근대중국사'와 같이 붙여 다음 예와 같이 하위개념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사

NT 고대한국사

근대한국사

5) 개념은 동일하지만 너무 포괄적이거나 용례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범위를 좁히고 싶을 때 다음 예와 같이 한정어를 부기할 수 있다.

군인(공군) [軍人]

군인(육군) [軍人]

동물(문화) [動物]

동물(미술) [動物]

동의어(영어) [同義語]

그러나 범위를 좁히기 위한 한정어는 모두 이미 독립적인 기입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논리곱(AND)검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범위를 결정할 때 시스템, 데이터, 색인자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범위한정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 예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있다. 다음 예에서 '항해'의 하위개념어로는 '관성항법' 등 24용어가 있다. '수상스포츠'의 하위개념어로 '항해'가 있으므로 '항해'가 포함되면 엉뚱하게도 '관성항법' 등 24용어는 '수상스포츠'의 하위개념어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두 '항해'는 한정어로서 구분되지 않으면 안된다.

항해

NT 관성항법

레이더항해

빙하항해

우주항해

천체항해

행성간 항해

.....

수상스포츠 NT 항해

.....

6)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동형이의어가 아니더라도 한정어를 부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한정어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범위주기나 설명주기에 가깝다.

첫째, 고대의 도시, 상상의 도시, 전설적 인물이나 가공의 인물 등을 지명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의 형태를 의미하는 일반 한정어를 사용할 수 있다.

나폴리(왕국)

폼페이(고대도시)

아폴로(그리스 신)

임신한 남자(전설적 인물)

드라우파디(힌두 신화)

스누피(가상인물)

홈즈, 셜록(가상인물)

둘째, 지역을 표현하는 표목, 특정 국가나 행정구역에 소재한 건물 혹은 구조물을 표현하는 표목,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표현하는 표목에는 지명을 한정어로 사용할 수 있다.

로마(이태리)

하느님의 교회(클리브랜드 : 테네시)

로드즈(그리스 : 섬)

아우슈비츠(폴란드 : 수용소)

미스티(페루 : 화산)

퀘벡(퀘벡 : 군)

셋째, 어려운 학술용어,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지 않는 용어 혹은 방언 등의 경우에는 한 번 출현하더라도 한정어를 부기할 수 있다.

궁륭(구조) [穹隆]

그라벤(지질학) Graben

노찾사(노래모임) USE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아베(아버지 : 경상도방언) USE 아버지
아바이(아버지 : 함경도방언) USE 아버지

3.4 한정어의 사용원칙

한정어의 선정작업은 색인어의 선정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따라서 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혹은 규칙성이 있다면 한정어의 선정과정이 단순해질 수 있다. 한정어의 평가 기준과 우선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상위개념어(BT : broader term)를 사용한다. 한정어는 일차적으로 상위개념어에서 선택한다. 다음 예에서 타이어(고무제품)의 제1수준 상위개념어는 '고무제품'이다. 그 외에도 '자동차, 차량, 바퀴, …'를 쓸 수도 있으나 상위개념어를 사용한다. 타이어(언어)의 상위개념어는 '동남아시아언어, 동양언어, 언어' 등이 있다. 마찬가지로 '생산시설, 신체조직'은 각각 '공장(생산시설), 공장(신체조직)'의 제1수준 상위개념어에 해당된다.

공장(생산시설) [工場]

공장(신체조직) [空腸]

타이어(고무제품) tire

타이어(언어) [타이]語

2) 쉽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탐색자가 한정어가 부기된 색인어를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개념의 구별이 가능해야 한다.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생각을 해야 한다면 그 한정어는 잘못 부기되었다 할 수 있다.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어를 풀어쓰는 방법과 관련 개념어(RT : related term) 중에서 가장 연상작용이 강한 용어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풀어쓰는 방법의 예를 보면, 국화의 한정어를 '국가상징, 화훼'도 가능하겠지만 '나라꽃, 꽃'이 보다 쉽게 이해될 것이다(해당 시소러스내에서 '국화(화훼)'의 상위개념어를 '화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꽃'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화꽃'을 고려할 수도 있다. 공채(공개채용)의 경우에는 '모집, 사원모집, 채용, 사원' 등을 생각할 수 있으나 공채의 원말로 풀어서, '남'과 '독자'는 풀어서 각각 '울타리, 외아들'을 사용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자어보다는 순수한 한글어가 쉽게 이해된다.

관련개념어를 사용하는 예를 보면, '광구(빛)'의 경우에는 상위개념어인 물리학보다는 태양이, 태양보다는 관련개념어인 빛이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독자(책)'도 '책, 사람, 문헌, 도서, 독서, 읽기, 읽는 사람'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연상작용이 강한 관련개념어는 '책'일 것이다.

공채(공개채용) [公採] USE 공개채용
 공채(유가증권) [公債]
 국화(국가상징) [國花] → 국화(나라꽃) [國花]
 국화(화훼) [菊花] → 국화(奚) [菊花]
 → 국화(국화꽃) [菊花]
 담(울타리) [墻]
 담(체액) [膽]
 방한(한국방문) [訪韓] USE 한국방문

광구(물리학) [光球] → 광구(태양) [光球]
 → 광구(빛) [光球]
 광구(광산) [礦區]
 독자(외아들) [獨子]
 독자(책) [讀者]

3) 다의성이 없거나 적은 한정어를 사용한다. 한정어를 식별하기 위한 한정어를 다시 부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예에서 가문(가계)의 '가계'는 '家系, 家計' 등, 가문(문장)의 '문장'은 '文章, 紋章' 등과 같이 다의성이 많은 것에 비해 '집안, 상징'은 다의성이 적다. '문중'을 한정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문(집안과 문중) [家門]'과 같이 접속사구를 한정어로 사용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다.

가문(가계) [家門] → 가문(계통) [家門]
 → 가문(집안과 문중) [家門]
 → 가문(집안) [家門]
 → 가문(문중) [家門]
 가문(문장) [家紋] → 가문(상징) [家紋]
 말(장기) chessman

전술한 예에서 한정어로 사용된 '말(장기)'은 '長技, 將棋, 臟器, …'의 다의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한정어라 할 수 없으나 '말(도량형), 말(동물), 말(식물), 말(언어)'의 네 가지 용어와 함께 나타나게 되며 개념이 대비되어 자연스럽게 의미를 한정하므로 한정어로 가능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형이의어에 의해서 발생되는 모호성의 문제는 실제적인 면보다는 이론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언어 자체가 지닌 의미는 모호하더라도 다른 언어와 관련되어 사용되면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모호하지만 후조합검색시스템에서 '제철'이라는 단어와 결합되면 모호성은 줄어들게 된다.

4) 다의성이 적은 것 중 가능한 한 짧은 것으로 한정어를 삼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공동(빈글짜기) [空洞] → 공동(구멍) [空洞]
 노찾사(노래를 찾는 사람들) → 노찾사(노래모임) USE 노래를 찾는 사람들

5) 동사의 원형이나 활용형을 사용한다. 적당한 명사 한정어가 없거나 해당 명사형 한정어가 다의성이 있을 때 다음 예와 같이 동사를 사용하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에 대한 한정어는 명사의 의미에 해당하는 동사의 원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병사(죽다), 부족(모자라다), 비행(날다)' 등이 그것이다. 또한 어떤 동작의 대상 또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는 그

동작에 대한 동사의 연용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공기(숨쉬는), 못(박는)' 등이 그것이다.

병사(죽다) [病死]

부족(모자라다) [不足]

비행(날다) [飛行]

공기(대기) [空氣] → 공기(숨쉬다) [空氣]

→ 공기(숨쉬는) [空氣]

못(박는)

'병사(죽음), 부족(모자람), 비행(넓), 공기(숨쉼), 못(박음)' 등과 같이 동사의 명사형(동명사)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보다/봄, 오다/옴, 가다/김' 등과 같이 동사의 원형이나 연용형보다는 다의성이 늘어나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하나 이상의 한정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합한정어를 부기할 수 있다. 복합한정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정어간을 구분하는 기호는 '쉼표, 콜론, 세미콜론, 하이픈' 등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으나 관련대상 혹은 대비관계에 사용하는 콜론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복합한정어를 부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나의 한정어가 의미를 한정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는 다시 의미의 한정어를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예의 '경상도방언, 함경도방언'은 의미를 한정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의미에 대한 한정어 '아버지'를 부기하며, 의미와 관련된 '아버지'를 제1한정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베(아버지 : 경상도방언) USE 아버지
아바이(아버지 : 함경도방언) USE 아버지

둘째, 지명으로 동형이의어가 발생했을 때 한정어를 이중으로 부기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상위 지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의미와 상위 지명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때 상위 지명과 의미 관련 한정어를 제1한정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 이상의 복합한정어가 필요한 지명은 아직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필요하다면 붙여도 좋을 것이다.

주상(경상남도 : 거창)

중동(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ISO표준에서도 다음 예와 같이 지명은 서로 분명히 구별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완전해야 하며, 동일한 이름 간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부가적인 요소를 사용도록 규정하고 있다 (ISO/DIS 999-1993).

Middletown (Conn.)

Middletown (Ohio)

Middletown (Powys)

Somme (d partement)

Somme (fleuve)

셋째, 다수의 구성요소가 개념 구별의 역할을 할 때는 이를 다수의 요소를 모두 한정어로 사용할 수 있다. 미국국회도서관 주제명표 목표에서는 쉼표로 구분하여 8개의 한정어를 사용한 'Octets / 8중주'의 예의 일부를 보인

다. Octets 이외에도 'bicinium, duet, ensemble music, nonet, quartet, quintet, septet, sextet, string music, string quartet music, tricinium, trio, wind music' 등에서도 다양한 조합이 생길 수 있다. 한글의 경우는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 Octets(Bassoon, clarinet, flute, horn, harp, violin, viola, double bass)
- Octets(Bassoon, clarinet, flute, horn, oboe, trombone, trumpet, double bass)
- Octets(Bassoon, clarinet, flute, horn, trumpet, violin, violoncello, double bass)
- Octets(Bassoon, clarinet, flute, horn, violin, viola, violoncello, double bass)
-

의미에 대한 한정어 이외의 정보를 한정어 형식을 빌어 한정어의 위치에 부기하지 않고 다른 관계지시기호[예를 들면, 범위주기(SN : scope note)나 새로운 관계지시기호를 정의하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시소러스에서 점차 배제하는 추세이며, 색인 및 검색시 색인자와 탐색자가 편리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한정어형식이 적당할 것이다.

4. 한글한정어의 확대 응용

새롭게 제안한 한정어 사용의 개념은 시소러스에서뿐만 아니라 어휘를 처리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첫째, 일반 국어사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어사전에서는 어깨번호 등을 매겨 동형이의어를 구별하고 있으나 설명부분 혹은 참고정보까지를 읽지 않으면 구별이 불가능하며 여러 사전 간의 링크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정한 규칙에 의해 부기된 한정어를 이용하면 기입어만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특정 사전과는 독립된 링크가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글학회가 간행한 사전(한글학회, 1991)에서 '치다'라는 동사의 설명부분을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내용 일부를 한정어로 구별하고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각괄호([]) 부분은 예문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기입어를 사용하면 '치다'의 다의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모든 항목의 설명부분을 검토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 치다(간주하다) [생선으로 치다 / 일단락 되었다
고 치다]
- 치다(꺾다) [시험을 치다]
- 치다(공격하다) [적을 치다]
- 치다(그리다) [사군자를 치다]
- 치다(긋다) [밑줄 / 방점을 치다]
- 치다(기르다) [오리 / 누에 / 별을 치다]
- 치다(낳다) [새끼를 치다]
- 치다(내리다) [비바람 / 눈보라 / 파도 / 벼락이

치: 네¹ ① 무언에 생각이나 마음을 든. (原全)
 치네²-하다³ 圖(재)◎圖 ⇨ 치님⁴ (鄭全-)
 치: 네²-하다³ 圖(재)◎圖 ⇨ 치님⁴ (鄭全-)
 치누크⁵ ① 토키산에 둑쪽에서 부는 흰. [chinook]
 치누크-아: 치⁶ ② 토키산에 둑에 사다리처럼 보이는 흰 구름.
 (chinook arch)
 치녹⁷ ①〈한의〉 약물에서 퍼가 나는 흰. (原全)
 치나-나-끼이 ④ 例) 적구할 때에, 세 번째의 동작, 몸을 말 머리 뚜으로 비스듬히 늘는 듯이 하면서, 공체를 말 꼬리와 나란히 가도록 잡는 자세로 말을 다음에 한다. 韓방미.
 치: 다⁸ 圖(재) = 치이다⁹. ⑩몇이 ~.
 치다¹⁰ 圖(재) → 치다¹¹. ⑩그들이 ~. (제주).
 치다¹² 圖(재) ①바탕에 세차개를 불거나 비, 눈 따위가 세차개 푸리다. ⑩눈보라가 ~. 빙방이 ~. 봄비에 바람 치어 설같이 휘날린다. <주 요한: 봄비>. ②천둥, 번개, 벼락 같은 것이 일어나다. ③벼락이 ~. 청동, 번개 치면 밤. ④서리가 많이 내리다. ⑤먼서리(찬서리)가 ~. ⑥물결 같은 것이 있다. ⑦물결이 ~. 파도가 ~. 병구의 가슴속에서 물침입을 막아내는 소음들이 있다. — (남) ⑧손이나 무엇을 가지고 어 먼 물체에 세게 부딪다. ⑨방울을 ~. 무릎을 ~. 사람을 ~. 어깨를 ~. 팔이풀을 ~. 힘을 치며 통곡한다. ⑩발을 끌어서 죽였다. ⑪공격하거나는 뻔하다. ⑫쇠를 ~. 신사가 백제, 고구려를 치다. 그의 부당함을 늘어서 치기로 하였다. ⑬마음에 심한 충격을 주다. ⑭지난 철에 배어 넘지 못한 정령한 소나무의 고목이 그 무슨 침술의 시체와도 같이 삐쓸하게 마음을 친다. <이 효석: 청포도의 사상>. ⑮소리 나게 두드러거나, 악기를 두드려 연주하다. ⑯딱따기풀 ~. 손뼉을 ~. 창단을 ~. 풍금(페아노)을 ~. ⑰치고 치고 징구 치며 춤을 추었다. ⑲공을 빼리거나 힘기어 늘거나 경기를 하다. ⑳점구를 ~. 닉구를 ~. 공을 치며 늘었다. 그가 점 공이 올 날마다 남아았다. ⑳두드려야 한다. ⑳방울을 ~. ⑳말죽을 ~. ⑳찰한이나 떨싹 가루를 쳐서 뼈에도 두드려 짓이기다. ⑳먹을 ~. 앞뜰에 맷잔을 놓고는 장정 두어 사람이 철썩철썩된다. <전 수회: 설>. ⑶쇠붙이를 달구어 두드려서 연장을 만들다. ⑷낫을 ~. 그 도끼가 상하면 대장간에 가서 치어다 헤께. ⑸시간을 알리려고 어떤 신호 소리를 내다. ⑹종을 ~. 벽시계가 한 시를 쳤다. ⑺탁자기(탁자기) 따위로 글자를 칙다. ⑻타자를 ~. ⑼전신을 보내다. ⑽정보를 ~. 무건을 ~. ⑾무엇과 함께 치거나. ⑿나뭇가지를 끌어 ~. 어티카락을 함께 ~. 죄인의 목을 ~. ⑬가늘게 썰다. ⑭무우 채를 ~. ⑯잔갈질로 열매의 보늬를 깎다. ⑰밤(생들)을 ~. ⑲병이나 독기를 다스리다. ⑳열을 ~. 천의 늑을 치는 대는 다포기기기야 있다. ⑳체질을 하다. ⑳기투를 ~. 가는 모래를 세로 쳤다. ⑳액체나 가루를 투리거나 봇거나 깨졌다. ⑳잔을 ~. 기름을 ~. 암탉을 ~. 쇠초를 ~. 조운은 ... 진에 술을 처서 들어마시고 잔잔을 석에게 전했다. <안 수길: 세상인간형>. ⑳화두 따위를 누 손을 늘여 아주 부딪치며 쥐거나 그 놀이를 하다. ⑳화두(트럼프)를 ~. 화두 장을 ~. ⑳주사위나 꽂을 늘다. ⑳가령 우리들이 이 상 위에 돈을 떼어 놓고 주사위를 친다면 ... <만인계>. ⑳손발, 날개, 꼬리 따위를 세게 흔들다. ⑳꼬리를 ~. 날개를 ~. 사자나 와 쏘 불더 기로되. <구운용>. 꼬리를 치며 일어나는 침념을 누른 건 없었다. <정 한수: 금당백화>. 노인이 활을 짤릴 치며 걸어 왔다. <이 광수: 원효대사>. ⑳팔을 내쳤다. ⑳맨수역으로 허공을 칠뿐... ⑳이면 이동씨가 나타내는 행동을 하거나 일자게 하다. ⑳끈두학진은 ~. ⑳결음(충총결음)을 ~. 눈웃음(코웃음을)을 ~. 몸부림을 ~. 악단을 ~. 장난을 ~. 전처리를 ~. 엉엄을 ~. 만나기만 하면 엄비탈에 떡살을 부여잡고 악다구니를 치리라 하였다. <정 비석: 성황당>. ⑳일을 저지르다. ⑳사고를 ~. 그 놈이 기어이 일을 치고 말았더라. ⑳어떤 소리를 낸다. 치드는 ⑳교함을 ~. 이후성을 ~. 흐름을 ~. ⑳식을 굽거나 절, 도장 따위를 짹거나 하다. ⑳밀을 ~. 견선을 ~. 인을 ~. 맞는 담에 등그락다리를 쳤다. ⑳목화 따위를 그리다. ⑳난초를 ~. 사군자풀 ~. 손풀으로 자기도 모르는 경에 맹바닥에 산수와 치는 시늉을 낸다. <박 중화: 더정불심>. 치고 보니 삶은이라 어떤 짓을 저지르고 보니 품시 살해되는 짓이었다는 말. 치러 갔다가 밀기도 예사 남에게 무었을 상하려 갔다가 오히려 요구를 당하는 일도 혼히 있는 일이라는 말. 친 사람은 다리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다리 폴고 친다 남에게 특행을 하거나 좋지 않은 짓을 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나 그 짓을 당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말.

치다¹² 圖(남) ①발, 위장 따위를 퍼서 늘어뜨리다. ⑩발을 ~. 위장을 ~. ⑩그를 따위를 놓다. ⑩비 온 뒤 넛기에게 그물을 쳤다. ②방풍, 포장 따위를 퍼서 세우거나 둘러막다. ⑩김 선생의 서재에는 벌통이 쳐 있다. 죽자가 서너 개 걸려 있다. 포장을 퍼서 속선진을 만들다. ③천박이나 모기장 따위를 차리다. ⑩모기장을 ~. 차일을 ~. ④벽 따위를 만들거나 비트거나 담을 쌓다. ⑩간장을 ~. 유타리를 ~. 철조망을 ~. ⑤집 뒤로 담을 치고 작은 문 하나를 내었다. 초벽이 말랐으니 새 벽을 쳐야겠다. ⑥점을 베었다. ⑩배수진을 ~. ⑦포워링을 ~. ⑧줄을 가로로 늘이거나 베다. ⑩금줄을 ~. 새끼줄을 ~. 인물을 ~. ⑨거미가 거미줄을 늘이다. ⑩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⑪성경이나 대님 따위를 빼거나 두드린다. ⑫각반을 ~. ⑬행진을 ~. 단복을 입어 본지 어에서 대님 치는 법도 잊어버렸다.

치다¹³ 圖(남) ①듯자리. 명석, 역서리, 가마니 따위를 손으로 엮거나, 풀로 짜서 만들다. ②가마니를 ~. 역서리를 ~. 성을 차여 미당장을 할 때에... ③끈복을 엮어서 고다. ④주어니 꼬리를 ~. 방진남장을 ~. ⑤괴록, 명석, 듯자리 따위의 가장자리를 훼여거나 하여 마무르다. ⑥휘장을 배끈하게 쳤다. ⑦보금자리 따위를 만들다. ⑧높은 나뭇가지 위에 보금자리를 친 새들이 투드려거렸다.

치다¹⁴ 圖(남) ①쌓아거나 한 물건을 파내거나 그려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다. ②여의양장을 ~. 아궁이의 재를 ~. 번소를 ~. 우물을 ~. ③땅이나 나무 등을 파내어는이나 물건 따위를 만들다. ④는을 ~. 빙을 ~. 도량을 ~. 좌우에 놓은 벽이 모두 길 반이나 되고 벽 밖에 흔적을 쳐 수구로 물이 흘러... <칠세계>. ⑤걸레 따위로 편지드거나 뒤집다. ⑥걸레를 ~. 아문행주를 ~. 어느 날 점심 때였다. 마루 걸레를 치고 있는데... <입 유헌: 불온방>. ⑦) 흉치다¹⁵.

치다¹⁶ 圖(남) ①쌓아거나 한 물건을 파내거나 그려내어 다른 곳으로 옮기다. ②여의양장을 ~. 아궁이의 재를 ~. 번소를 ~. 우물을 ~. ③땅이나 나무 등을 파내어는이나 물건 따위를 만들다. ④는을 ~. 빙을 ~. 도량을 ~. 좌우에 놓은 벽이 모두 길 반이나 되고 벽 밖에 흔적을 쳐 수구로 물이 흘러... <칠세계>. ⑤걸레 따위로 편지드거나 뒤집다. ⑥걸레를 ~. 아문행주를 ~. 어느 날 점심 때였다. 마루 걸레를 치고 있는데... <입 유헌: 불온방>. ⑦) 흉치다¹⁵.

치다¹⁷ 圖(남) ①짓승이 세끼를 날거나 까서 퍼뜨리다. ②세끼를 ~. ③식물의 가지나 뿌리를 내닫게 하다. ④이 나무는 가지를 너무 많이 쳐서 품 속에 주어야겠다. ⑤가죽을 기르다. ⑥닭을 ~. 양을 ~. ⑦벌이 꿀을 만들다. ⑧벌이 꿀을 ~. ⑨남을 집에 들여서 먹고 자게 하다. ⑩손을 ~. 하숙을 ~.

치다¹⁸ 圖(남) ①계산에 날짜를 쳐서 나풀이로 충분하다. 원금에 이자까지 치면 백원이 넘는 빚이다. ②값을 매기다. ③군비라도 미리 당 청 원색은 쳐야 한다. ④원에 놓은 벽이 모두 길 반이나 되고 벽 밖에 흔적을 쳐 수구로 물이 흘러... <칠세계>. ⑤걸레 따위로 편지드거나 뒤집다. ⑥걸레를 ~. 아문행주를 ~. 어느 날 점심 때였다. 마루 걸레를 치고 있는데... <입 유헌: 불온방>. ⑦) 흉치다¹⁵.

치다¹⁹ 圖(남) ①무엇을 치르거나 쳄다. ⑩시헌을 ~. 끈일을 ~. 전치를 ~. 「마루를 깨끗이 ~.

치다²⁰ 圖(남) 「치우다」의 줄말. ⑩책상을 ~. 방을 ~.

치다²¹ 圖(남) → 치다²². ⑩초상 ~.

치다²² 圖(남) → 치다²¹. ⑩시술을 쳐 놓고 먹어나 보게. (제주).

치다²³ 圖(남) → 뿌리다. (합남).

치다²⁴ 圖(남) → 치다²⁵. ⑩검은엇을 ~.

치다²⁵ 圖 → 치다²⁶.

치다²⁶ 圖 → 치다²⁷.

치다끼리 ①일을 치러 내는 것. ⑩손님 ~. 잔치 ~. ②남을 도와서 바라지하여 주는 일.

치다끼리-하다 圖(남) ⑩여의도 → 치다끼리.

치-다루다 圖(남) 아래로부터 위쪽으로 옮겨 다룬다.

치다-보다 圖(남) → 치다보다. (경남).

치다끼리 圖 → 치다끼리.

치단 圖 또는 사치의 시초. (佛端)

치-딛다 圖(제) ①위로 향하여 날리다. ⑩노무는 산등성이 쪽으로 치-딛다. 치-딛다. ②힘차고

〈그림 1〉 국어사전에서 '치다'의 설명

치다]

- 치다(놀이하다) [화투 / 땁지를 치다]
- 치다(늘어뜨리다) [발을 치다]
- 치다(닦다) [결례를 치다]
- 치다(동작하다) [활개 / 장난 / 도망 / 진저리를 치다]
- 치다(두드리다) [종 / 피아노를 치다]
- 치다(들러막다) [발 / 병풍 / 울타리를 치다]
- 치다(따르다) [술을 치다]
- 치다(때리다) [어깨 / 책상을 치다]
- 치다(만들다) [가마니 / 뜯자리를 치다]
- 치다(매기다) [값을 치다]
- 치다(매다) [새끼줄 / 휙갑을 치다]
- 치다(묵다) [하숙 / 손님을 치다]
- 치다(박다) [못을 치다]
- 치다(받아내다) [체에 가루를 치다]
- 치다(베다) [목을 치다]
- 치다(보내다) [전보를 치다]
- 치다(보다) [점을 치다]
- 치다(뽐내다) [공갈 / 허풍을 치다]
- 치다(뿌리다) [간장 / 소금을 치다]
- 치다(소리내다) [소리를 치다]
- 치다(썰다) [무채를 치다]
- 치다(쏠리다) [솜이 한쪽으로 치다]
- 치다(운동하다) [공 / 테니스 / 탁구를 치다]
- 치다(저지르다) [사고를 치다]
- 치다(짓이기다) [떡을 치다]
- 치다(청소하다) [눈 / 마당 / 우물 / 외양간 / 딸을 치다]
- 치다(치이다) [차에 치다 / 뒷에 토끼가 치다]
- 치다(파내다) [도량을 치다]
- 치다(펴다) [그물을 치다]
- 치다(흔들다) [꼬리 / 날개를 치다]

한정어를 채용하고 있는 영어사전의 예를 보면 <그림 2>와 같다(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이 사전에서는 안내어 (guide wor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2>에서 기입어와 안내어만을 뽑아 수록된 순서대로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안내어의 형이 명사, 명사구, 동사, 동사구, 전치사, 전치사구, 형용사 등 다양하다는 것과 배열순서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ad (control)

lead (show away)

lead (direction)

lead (in front)

lead (influence)

lead (metal)

lead (pencil)

lead (live)

lead (animal)

lead (electrical)

둘째, 전거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거파일에서는 기입어를 유일하게 식별하여야 하므로 한정어 적용의 기본논리는 같다. 이름 전거, 통일서명전거, 주제명전거가 있으며, 이름전거에는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지명이 포함된다. 이 중 책명과 인명의 가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동양인명인 경우에는 특수하게 한자를 한정어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한 책명인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저자명, 출판지, 출판년, 기타 다른 한정어를 추가하여 구별할 수도 있다.

lead to leader

are very happy to work for him. • She was elected as leader of the students. • The leader (Am and Aus usually concertmaster) of an ORCHESTRA (= group of musicians) is the main VIOLIN player. • Leader is also Am for CONDUCTOR of an ORCHESTRA. • (Br) A leader is also an editorial. See at EDIT.

leadership /'li:dəsfi:p. ə'dʒəfə/ n [U] • Leadership refers to the set of characteristics that make a good leader. Strong and effective leadership might have made the team more successful. • The organization lacked leadership. • He did not have any leadership qualities. • Leadership is also the position of being the leader: The group flourished under her firm leadership. • R&M gained market leadership (= sold more goods than other companies) by selling products that were of superior quality. • The leadership is the person or persons who lead: The election for the leadership of (= person who leads) the council will take place on Tuesday. • The leadership (= group of people in control) of the expedition was/were very experienced. [+ sing/plv]

lead (obj) [SHOW WAY] /lɪd/ v past led /led/ to show the way, esp. to people, animals, vehicles etc. that follow • If you lead (on) in the jeep we'll follow behind on the horses. [I] • The local youth band will lead the parade this weekend. [T] • Our guide led us over/through the mountains. [T] • You've been there before - why don't you lead the way (= show the way by going in front). • (fig.) The company has been leading the way in (=been the first to produce) network applications for several years. See also lead the field/pack/world at LEAD [IN FRONT]. • Lead the discussion off/Lead off the discussion (= Begin the discussion) with a summary of statistics. [M] • (in/fm) To lead someone a (merry) chase/dance is to cause them a lot of trouble, esp. by getting them to do a lot of things that are not necessary. • (in/fm) If you lead someone up/down the garden path you deceive them: It seems as if we've been led up the garden path about the position of our hotel - it's miles from the beach! • A lead-in is something that introduces something else, such as the words and music that are used to introduce a television programme. • (saying humorous) 'Lead on, Macduff' means you lead and I will follow.

lead /lɪd/ n [C] (usually sing) • We'll go through the dance routine again - follow my lead (= do what I do). • He gave us a strong lead.

lead (obj) [DIRECTION] /lɪd/ v [always + adv/prep] (esp. of roads, paths, doors, signs, information, etc.) to (allow or cause to) go in a particular direction or have a particular result • About two kilometres down this road a track to the right leads (up) to the reservoir. [I] • A flight of narrow steps leads (up/down) to the kitchen. [I] • Behind the tapestry a concealed door led into a secret room. [I] • The French windows lead (out) onto a wide shady terrace. [I] • A narrow trail of blood led directly into the cave. [I] • It was very foggy but the sound of the bell led the boat to safety. [T] • Following the signs led us into a small square with a fountain. [T] • The new information led (the police) to a house near the harbour. [I/T] • Years of painstaking research have led to a new vaccine. [I] • Ignoring safety procedures led to a tragic accident. [I] • Indifference to pollution now will lead us into serious problems in the future. [T] • To lead up to something is to prepare slowly or indirectly for it: She led up w/ her request for a new bike by telling her parents how much money she was spending on bus fares. [I] • A period of time which leads up to an event or activity comes before it: We're going to be very busy in the week leading up to our holiday. [I] • (specialized) The lead time for a new product is the time needed to design it before it can be made.

lead /lɪd/ n [C] • A lead is a piece of information which allows a discovery to be made or a solution to be found: A lead from an informer enabled the police to make several arrests. • Survey results gave the lead needed to find the virus's origin.

lead (obj) [IN FRONT] /lɪd/ v past led /led/ (esp. in sport or other competitions) to be in front, to be first or to be winning • After thirty minutes the challengers were leading (their opponents) by two goals. [L/T] • With two laps to go Ngomo led by less than two seconds. [I] • If you lead the field/pack/world you are better than other people or things: The company's new software leads the field. • Their research group leads the world in nutrition research. • See also lead the way at LEAD [SHOW WAY].

lead /lɪd/ n [U] • For the first time in the race Smith is in the lead. • With a final burst of speed she went/moved into

page 804

the lead. • After last night's win Johnson has taken (over) the lead in the championship table. • By the end of the day's play Davies had/held a lead of three points. • Another mistake like that and Martin could lose his lead. • American companies hold about 70% of the world computing market and this lead will probably increase.

leader /'li:dər. ə'dʒədə/ n [C] • Hill was the leader up to the 5th lap, when his car ran out of petrol. • They interviewed Dr. Jones, a leader in the field of microbiology. • "Leader of the Pack" (title of a song by the Shangri Las, 1965)

leading /'li:dɪŋ. ə'dʒənɪŋ/ adj [before n] • She is a leading expert on the country's ecology. • If something is at the leading edge or is leading-edge it is more advanced than other similar things: leading-edge technology

lead obj [INFLUENCE] /lɪdəv/ v [T] past led /led/ disapproving to influence (someone) to think or do something in a particular way or cause them to do something bad • Being under pressure can easily lead people (on) to make the wrong decisions. [+ oh! : to infinitive] • But the brochure led me (on) to believe that the price included home delivery. [+ oh! : to infinitive] • It's worrying that such a prominent politician is so easily led (on) (= easily persuaded esp. to do something wrong). • I'm sure it's someone at school who led Tom on/at/away (= caused him to behave badly). • To lead someone on is to persuade them to believe something which is not true: He really believed her story about the holiday being cancelled but she was only leading him on. • All the time she'd been leading him on (= pretending she liked him) but she was only interested in his money.

leading /'li:dɪŋ. ə'dʒənɪŋ/ adj [before n] • A leading question is a question which, by the words used in it, suggests the answer that the questioner wants: We know you asked leading questions at the interrogation because the prisoner stated facts he couldn't have known.

lead [METAL] /lɪd/ n [U] a very dense, soft, dark-grey, metallic element which is used on roofs and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It is also poisonous. • The lead pipes in many older houses have been replaced by copper ones. • Some types of paint on toys might cause lead-poisoning (= an illness caused by lead) in children. • If something goes down like a lead balloon, it is not popular or successful: Well, your suggestion that we work all weekend went down like a lead balloon.

lead-ed /'ledɪd/ n [U], adj [not gradable] • Does the car take leaded (petrol) (= fuel with small amounts of lead added to help it burn smoothly)? See also UNLEADED. • Leaded lights (also leaded windows) are windows made from small pieces of glass fixed together with lead strips. • [PIC] Window

leading /'ledɪŋ. ə'dʒənɪŋ/ n [U] (Br) Leading is the lead used to cover (parts of) a roof. • Leading (Br also leads) is also the thin strips of lead which hold together the small pieces of glass in leaded lights.

leads /lɛdəz/ pl n [Br] Leads are the LEADING between pieces of glass in a window.

lead [PENCIL] /lɪd/ n (the narrow strip of) coloured material, usually black and made of GRAPHITE, in the centre of a pencil • Have you got a spare pencil Kate? Peter's broken the lead in his. [C] • Do you think pencil lead will wash out of this white shirt? [U] • (taboo slang) To have/put lead in your pencil means to have/give an ERECTION (= have the penis temporarily larger and harder).

lead obj [LIVE] /lɪdəv/ v [T] past led /led/ to live (a particular type of life) • After retiring from the movies she led a quiet life on the Riviera. • We hardly lead a life of luxury but we're not poor either.

lead [ANIMAL] esp. Br and Aus /lɪd/ , esp. Am **leash** n [C] a piece of rope, chain, etc. tied to an animal, esp. to a dog at its collar when taking it for a walk • Please keep your dog on a lead when on the beach. • There aren't any sheep around so let the dog off the lead. • (often humorous) If someone is (let) off the lead/leash they are (temporarily) free from a previous limit to their freedom, esp. in a relationship: He's away on business so you're (let) off the lead for the evening - let's go to the club. • [PIC] Dogs

lead [ELECTRICAL] /lɪdəs/ Br also flex, Am and Aus also cord, Am also wire n [C] a wire used to connect electrical equipment to a PLUG (= device through which it receives power from the electrical system) or to other pieces of equipment • She tripped over the television lead. • [PIC] Fires and space heaters, Lights

lead-on /'ledən/ adj disapproving dark or (fig.) lacking excitement • The sky looks leaden (= full of dark clouds).

김대중(교수) [金大中] 생년월일

김대중(정치가) [金大中] 생년월일

김대중(정치가 : 언론가) [金大中] 생년월일

아베마리아(구노)

아베마리아(슈베르트)

아베마리아(베르디)

5. 제안 방법의 문제점

이상으로 제안한 방법은 동형이의어가 발생하는 여러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채용하는 데 논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부여하는 한정어의 형식에 일관성과 논리성이 약하다는 데 있다. 어떤 일군의 동형이의어에 대해 부여한 한정어는 색인자마다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대상 개념이 개인의 배경에 따라 ‘이해’의 정도가 달라 대응되는 한정어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념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한 일관성과 논리성의 결여는 모든 자연언어가 갖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이를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일관성과 논리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원칙을 찾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며, 본고에서 논한 원칙을 채용한다면 적어도 개별적인 사전 내에서는 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지적 노력이 많이 듦다는 점이다. 자동색인법이 발전하고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색인시 동형이의어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식별하기 위한 한정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힘드는 일이다. 또한 한정어로 모든 동형이의어를 구별한 사전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효율성 있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하는 일일 것이다. 관리자 측면이 아니라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글한정어를 사용하여 구별한 사전을 한번만 만들면 모든 기관과 시스템이 이 사전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색인시스템에서도 맥락에 의해 다의성이 해결된 해당 기입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 사전을 자동색인시스템이 이용함으로써 색인 시 개별적으로 한정어를 결정해야 할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색인의 세계에서 한정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동형이의어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제어휘사전에서 한정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한정어로 한글, 한자, 영문 등을 혼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장차 어휘사전에 포함되는 분야가 확대되고 수록용어가 늘어나게 되면 동형이의어의 구별이 어렵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형이의어가 있는 경우에 색인자와 일반 탐색자가 이들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새로운 한글한정어와 복합한정어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 구축하고 있는 시소러스를 중심으로 논함과 아울러 시소러스 이

외의 사전에서의 확대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정보서비스의 대상이 일차적으로 당해 언어권의 일반 이용자라는 점에서 보면, 특정 언어권에서 생산된 시소러스에 자국어를 주된 표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작업이다. 그러나 한글한정어 및 복합한정어의 형식은 표목의 문제와 비슷

한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정어를 보다 일반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규칙성, 일관성 및 객관성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다양한 동형이의어의 유형과 한정어의 형식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방과학연구소(1994). 「국방과학기술시소러스」. 대전 : 국방과학연구소.
- 이재철(1961). 「주제명표목표」. 서울 : 연세대학교.
- 한국경제신문사(1993). 「경제신문 시소러스」.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 한국통신연구개발원(1995). 「시소러스」.
- 한글학회(1991). 「우리말큰사전」. 서울 : 어문각.
- Cambridge University Press(1995).

-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 ISO/DIS 999-1993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Guidelines for the Content, Organization and Presentation of Indexes.
- Library of Congress(1992). Library of Congress Subject Headings. 15th ed.